

[경제]

■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이라 경고 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내놓은 전망치인 '5% 안팎'과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특히 밖에서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지구촌을 뒤흔들면서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안에서도 부동산 시장침체와 경상수지 적자 등이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모두가 “3%”하는데 정부만 “5%” 고집

◇내년 경제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나=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내총 생산(GDP) 성장률을 실질 기준으로 4.8~5.2%로 예상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 경제도 정상궤도로 복귀되면서 경제성장률은 5% 내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해 2012년이면 6.6~7.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엔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7.4.7 공약’대로 임기내 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한국은행 등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의 전망은 이같은 정부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건너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뒤 “경제성장률이 4%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또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4%

韓銀·IMF·LG경제研 등 “갈수록 먹구름”

글로벌 실물경제 침체 확대 맨 치명적 타격

성장이 힘들고 하반기에도 자신 있게 좋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WEO)에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인 4.3%보다 0.8%포인트 낮춘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13일 내년 한국의 성장을 전망치를 기준 4.6%에서 3.9%로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성장을 하향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의 전망 역시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LG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4.4%에서 내년에 3.6%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제 개편안의 효

과 반영된다면 0.4%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쳤다.

반면 소비자들은 상승률은 국제유가의 안정 등으로 내년에는 3%대 중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 이내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상한선 부근까지는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물경제 국내외 변수 많아=내년에 한국 경제가 예측기관의 전망대로 움직일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국내외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극복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신용경색이 실물로 파급되는 데 따른 경기침체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이런 외풍을 어느 정도 견뎌낼지도 속단할 수 없

다는 것이다.

글로벌 신용위기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실물침체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대외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다는 게 취약점이다.

신진국에 이어 신흥시장국 등으로 경기침체가 퍼져나간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수출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은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은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 늘어나는 데 머물렀으나 수입은 37.6%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실물경기 침체가 부동산 가격하락을 촉발한다면 저축은행의 부실을 터트리면서 금융권 전반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예금취급 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2천776억원 늘어난 503조999억원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다.

증시 얼마나 높이 날까

불안 털고 ‘안도랠리’ 1400대 반등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로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을 국도의 불안에 떠밀고 신용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코스피지수도 1,400대 중반까지 오르는 ‘안도랠리’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안도랠리’로 1,400~1,450선

무난=국내외 증시의 폭등을 가져온 것은 세계 주요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이제 글로벌 신용경색의 해소를 기대할 만하다는 투자자들의 안도였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의 달러 무제한 공급, 총 2조 달러에 달하는 유럽 각국의 공적자금 투입 결정, 미 재무부의 은행지분 매입 착수 등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공조가 시장을 안심시킨 것이다.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지난주 말 종가보다 936.42포인트(11.08%) 폭등한 9,387.61로 마감해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프랑스·독일 등 유럽 증시도 10% 넘게 폭등했다.

국내에서도 1,400대 중반까지는 무난한 ‘안도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전망이다. 코스피지수

수가 1,400선 밑으로는 거래가 거의 없이 급락했기 때문에 매물 공백이 형성돼 있어 기술적 반등이 올 경우 1,400선까지는 큰 저항 없이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의 이선엽 애널리스트는 “‘너무쳤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어 당분간 매수세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병’ 많아 추세전환은 시기상 조=기술적 반등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본격적인 상승추세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15일(현지시각)부터 발표되는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실적 발표다. 만약 금융주 실적이 예상과 일치하거나 소폭 상회할 경우 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고 안도랠리를 지속시킬 수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부실이 발표될 경우 경계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기업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3분기 실적 발표기간을 무사히 통과할지 여부가 랠리 지속의 단기적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시리즈 면도기’ 출시

14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면도기 업계 최초로 시리즈 개념을 도입한 ‘브라운 시리즈(Braun Series)’ 출시 행사가 열려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 주택·어린이 펀드 원금 30% 이상 까먹었다

내 집이나 아이들 교육비 마련을 위해 장기주택펀드와 어린이펀드에 가입한 서민들이 올해 원금의 30% 이상을 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대비를 위해 설정된 각종 개인연

금펀드와 퇴직연금펀드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비켜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29개 내집 마련장기주택 투자형펀드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이 -33.7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펀드(15개)도 최근 1년간 평균 33.65%의 손실을 내고 있다. 장기주택 펀드 중에는 ‘삼성장기주택마련대표주식종류형자1-C1’펀드의 수익률이 -39.32%로 저조했으며 ‘미래에셋자이나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주식형자C-C’펀드(-34.62%), ‘하나UBS장기주택마련주식1ClassC’펀드(-34.48%) 등의 순으로 부진했다.

어린이펀드의 경우 ‘미래에셋우리아

이친다이아업종대표주식형자1자(C-C)’ 펀드의 1년 수익률이 -49.59%로, 이 펀드는 원금의 절반 가량 사라졌다. ‘우리

07%), ‘농협CA아이사랑적립주식1’펀드(-36.65%), ‘KB캐거루적립식주식’펀드(-36.23%) 등의 펀드는 원금의 40% 정도 증발됐다.

/연합뉴스

금융자산 백만장자

한국 11만8천 여명

우리나라에서 집 등을 제외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가 11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

사됐다. 14일 메릴린치가 컨설팅업체 캡제미니와 공동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 2008’에 따르면 한국 고액순자산보유자(HNWI·최소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는 2007년 말 현재 11만8천명으로 작년보다 18.9% 늘었다.

한국의 HNWI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인 6.0%를 크게 앞서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연합뉴스

환율 어디까지 떨어지나

1,200원 부근 하락세 둔화

이달 들어 1,485원까지 폭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14일 4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1,200원 부근으로 하락했다.

세계 주요국이 금융위기로 공동 대처하기로 하면서 국내의 증시가 급등하자 원·달러 환율도 평균(심리적 공황)에 의한 급등분을 상당부분 반납하는 양상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기관 간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국내 수급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1,200원 부근에서는 하락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 4일간 190원 폭락=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현재 전날보다 달려화 33.00원 급락한 1,20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4거래일간 하락폭은 190원에 달하고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국내외 공조에 따른 금융위기 대응 우려감 완화로 환율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엔드푸어스(S&P) 500지수는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주가와 원화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

◇실물침체 우려 여전…추가하락·둔화 전망=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폭등의 조정과정에서 환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지만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대기업들의 달러화 매도로 수급 과리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달려화 수요 우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 흥승모 차장은 “국가의 자본금 투여와 신용보증 등으로 국제 금융시스템이 연내 상당부분 복원될 것으로 보여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하락세를 지속하더라도 1,200원 부근에서는 수입업체의 결제수요도 유입되고 있어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환율 때문에 …

수입물가 한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한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9월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8월에 비해 2.3% 올랐다. 전월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4.4%로, 1년 2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가 9월 다시 상승했다. 작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8월과 같은 42.6%를 기록했다.

이병우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가격은 내렸지만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중간재와 자본재·소비재가 모두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8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12.99달러에서 9월 96.30달러로 14.8%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은 1,041.54원에서 1,130.40원으로 8.5% 상승하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물가를 끌어올렸다. 환율변동 효과가 제거된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으로 보면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5.7% 하락했고, 작년 동월대비로는 17.2% 상승하는데 그쳤다.

품목별 전월대비 등락률을 보면 원자재에서 원유(-7.6%), 밀(-1.9%), 동광석(-0.6%) 등이 하락한 반면 쌀(8.5%), 과일(8.7%), 대두(2.0%) 등은 올랐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입찰

포스코 “단독 참여”

포스코는 대우조선해양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던 GS가 탈퇴한 것과 관련, 단독입찰 형태로 계속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진행한 뒤 “GS가 컨소시엄을 파기하고 입찰에서 빠졌지만 단독입찰 형태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계속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사회에서 GS의 컨소시엄 파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대우조선 매각 단독입찰과 인수포기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GS의 탈퇴로 입찰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입찰 제안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계약이지만 산업은행이 변경에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찰관련 단서규정에 무게를 두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포스코는 단독입찰 제안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이날 오후 산은의 입찰자격 부여 결정 여부를 지켜보고 제출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